

## 식민시대 홍콩 지배 계층의 권력 구조와 갈등 양상\*

施叔青의 소설 『維多利亞俱樂部』을 중심으로

송주란

heeya5280@hanmail.net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국문 초록

스수칭은 타이완 루강 출생으로 미국, 홍콩, 타이베이에서 각각 장기간 거주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중 정체성을 지닌 작가이다. 그녀는 경계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한다. 『빅토리아 클럽』은 스수칭이 홍콩에서 10여 년간 거주한 후 자신의 위치와 시선에서 바라본 홍콩을 묘사한 소설이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인 1950년대 이후부터 홍콩의 주권이 중국대륙으로 반환되기 전인 1980년대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 내부에서 서술되는 시간은 약 100여 년 간의 식민시대 전체이다.

『빅토리아 클럽』은 식민지 공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클럽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뇌물 공모수뢰 사건을 파헤친다. 스수칭의 시선은 홍콩의 최상층부인 사법부로 향해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식민지 홍콩의 중간 관리인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徐槐)와 홍콩본

토 출신인 싹죡(峇約)이다. 이들의 관계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이자 신이민자와 본토인(홍콩출신)의 관계이다. 초위와이는 스펙터클한 사회에 매몰된 인물로 묘사된다. 스펙터클한 사회에서 초위와이의 소비와 구매 욕구는 뇌물 수뢰라는 부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갈등 해소 방식 역시 또 다른 소비와 구매라는 끊임없는 물화 방식으로 연결된다. 한편 싹죡의 갈등 양상은 홍콩에 대한 반자본과 반식민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중요성의 표출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신이민자 초위와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연결된다. 소설은 이들의 갈등을 축으로 전개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파생된 인적 네트워크와 기억을 통해 홍콩과 상하이의 역사와 도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결국 당시 작가 스수칭의 시선에서 바라본 홍콩 사회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물려 형성된 기괴하고 낮은 사회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낮은 기괴함은 오히려 홍콩의 일상이 되었고 동시에 홍콩의 정체성임을 소설은 보여준다. 이것은 필자가 소설 『빅토리아 클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해낸 결론이다.

주제어 : 홍콩문학, 스수칭, 빅토리아 클럽, 식민주의, 자본주의

## 1. 들어가며 - 홍콩과 스수칭

중국의 명·청 시기, 남동 해안에 위치한 홍콩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편협한 이 지역은 아편전쟁 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지리적으로 무역에 유리한 이상적인 정착지를 보유하고 있던 홍콩은 영국의 식민화 전략에 따라 점차 도시화

가 진행된다. 영국은 홍콩에 식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동시에 실시한다. 식민주의와 자본은 하나의 기제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식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국경 밖의 영역과 그곳 사람들에 확대하는 정책 활동으로 그 원동력은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모로 경제 발전을 도모한 홍콩은 중국 대륙에서 이주해온 중국인과 서양인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로 동서양의 문화와 가치가 서로 뒤얽혀 섞인 혼종의 장소로 변모한다. 홍콩의 식민 역사는 서양과 중국의 문명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문화적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 사상과 관념적 차이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은 서로 타협하며 공존하게 되었다. 식민담론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민담론 분석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의해 문학 이론과 문화이론의 학구적인 하위 학문 분야로 시작되었고, 『오리엔탈리즘』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의 경제적 요소에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도전하였으며, 서양이 동양으로 확장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sup> 스수칭(施叔青, 1945~)의 홍콩 관련 소설은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식민담론에 관한 이론들이 작중인물과 사건이 전개되는 플롯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스수칭(施叔青)<sup>2)</sup>은 타이완(台湾)의 루강(鹿港)에서 태어났다. 그녀

1) 로버트 J. C 영, 이경란·성정혜 옮김, 『식민욕망—이론, 문화, 인종의 혼종성』 (서울, 북코리아, 2013), 246~247.

2) 스수칭에 대한 소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刘邓翰 主编, 『香港文学史』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9), 450~455; 张志珠, 「施叔青的世界」, 『博益月刊』 第9期 (香港, 1988.5.15), 9~13; 施叔青, 「我写历史小说」, 『香港文学』

는 1961년 17세 나이에 처녀작 「도마뱀붙이(壁虎)」를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스수칭은 1960년대 타이완 모더니즘 소설 창작에 참여하고 1970년대는 신여성주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다. 스수칭은 타이완 단장(淡江)대학 외국어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시립대학 연극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녀는 1978년 남편을 따라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 홍콩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스수칭은 타이완의 루강에서 타이베이(台北)로, 타이베이에서 미국 뉴욕으로, 뉴욕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타이완에서 다시 미국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며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스수칭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체험을 통해 창작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중 정체성<sup>3)</sup>을 지닌 작가이다. 스수칭은 자신이 거주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고 출판했다. 이에 그녀가 어느 지역에서 작품을 발표했는지에 따라 타이완 작가, 화인화문문학(華人文學)<sup>4)</sup> 작가, 홍콩 작가로 소개된다.<sup>5)</sup> 한 인터뷰에서 스수칭은

---

总第314期(香港, 2011.2.1), 4~7; 香港文学, 「施叔青作家年表」, 『香港文学』总第314期(香港, 2011.2.1), 21; 应宇力, 「无根无常的人生—异邦人施叔青的创作」, 『香港文学』第190期(2000.10.1).

- 3) 필자가 여기서 언급한 다중 정체성이란 경계인이 주로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 하나의 국가나 지역에 대한 소속이 아니라 복합적인 소속으로 이루어진 초국가성으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을 의미한다.
- 4) 김혜준은 그의 논문에서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화인화문문학은 화인이 화문(중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일컫는다. 여기서 화인이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 및 사실상 한족에 동화된 중국 출신 일부 소수종족을 말한다.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중국현대문학), 121.
- 5) 본고에서는 홍콩작가의 범주에 따라 스수칭을 홍콩작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혜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혜준, 「홍콩문학의 독자성과 범주」, 『중국어문논총』 제25집(중국어문연구회, 2003).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본인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sup>6)</sup> 이는 스수칭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형성된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며 여러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하에 형성된 다중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지닌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스수칭을 홍콩작가의 범주에 두고, 그녀의 작품으로 형상화된 홍콩 사회의 단면을 분석해 볼 것이다.

스수칭은 홍콩문학에서 이주작가<sup>7)</sup>로 분류되어 소개된다. 이주작가의 범주 안에는 다시 남래(南來)작가라는 하위 범주의 작가군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주작가든 남래작가든 이들은 홍콩에서 나고 성장한 홍콩본토 작가(홍콩 출신 작가)와는 구별되는 명칭이다. 홍콩에서 이주작가와 남래작가의 차이는 홍콩으로 이주해오기 전의 출발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해온 작가를 남래작가라 명명하고, 중국대륙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그 외 동남아 지역 및 북미, 유럽 등 기타 여러 지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작가들을 이주작가라 일컫는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홍콩문학에 있어서 남래작가의 점유율이 이주작가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홍콩문학에 영향을 끼친 점에 있어서도 이주작가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남래작가에 비해 이주작가가 수적으로는 약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작가를 따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 소수의 이주작가가 홍콩문학에 끼친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스수칭은 홍콩문단에 큰 영향력을 끼친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

6) 张志珠, 「施叔青的世界」, 『博益月刊』 第9期 (香港, 1988.5.15), 9~13.

7) 刘登翰의 『香港文学史』에 의하면 스수칭은 ‘外来作家’로 소개된다. 그리고 外来作家는 중국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南來作家와는 구별된다. 外来作家 범주에 南來作家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홍콩의 외래작가를 이주작가로 명칭한다.

은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sup>8)</sup>

스수칭 작품의 특징은 자신의 상상과 환상을 축으로 한 일상적이 지 않은 기괴한 이야기와 하류층 여성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9)</sup> 그녀의 초창기 창작 경향은 한마디로 그로테스크(grotesque) 리얼리즘이다. 이후 1990년대 들어와서는 리얼리즘적 경향으로 전환된다. 스수칭은 1977년 홍콩으로 이주한 후 17년간 그곳에 거주하며 스펙터클한 자본주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괴한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단편소설 『홍콩 이야기(香港的故事)』와 중편소설 『빅토리아 클럽』 그리고 역사소설인 『홍콩 삼부곡(香港叁部曲)』<sup>10)</sup>을 발표한다. 그 중 『빅토리아 클럽』은 『홍콩 삼부곡』의 근원이 된 소설이다.<sup>11)</sup> 『홍콩 이야기』는 스수칭이 홍콩에 이주한 후 홍콩에서 보고 느낀 세태를 기록한 것이며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홍콩 적응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제 면에서 살펴볼 때 홍콩의 다른 이주작가나 남래작가들 샤오통(肖銅), 량시(梁錫), 종링(鍾玲), 타오란(陶然), 등루이(東瑞) 등이 다룬 소설의 주제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스수칭이 홍콩으로 이주한 지 오래지 않아 홍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수칭은 『홍콩 삼부곡』에서 기녀 왕따완(黃得云)의 개인사를 통해 홍콩 개항 100년의 식민지 역사를 심도 있게 그려낸다. 홍콩의 이주작가였던 그녀가 홍콩본토 작가도 쓰지 못한 100여 년간의 홍콩 역사소설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10여 년간의 홍콩 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스수칭 본인의

8) 刘邓翰 主编, 『香港文学史』(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9), 449 참고.

9) 왕더웨이, 김혜준 옮김, 『현대중문소설작가 22인』(서울, 학고방, 2014), 374 참고.

10) 『그녀의 이름은 나비(她名叫蝴蝶)』, 『은 산에 가득 핀 자형화(遍山洋紫荆)』, 『적막한 저택(寂寞雲園)』3편의 소설을 말한다.

11) 刘邓翰 主编, 『香港文学史』(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9), 451.

창작 성과물을 남기고자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하소설 또는 역사소설에 대한 창작의 신화를 깨고 싶었기 때문이다.<sup>12)</sup> 스수칭의 역사소설은 실제 역사를 근거로 스토리를 엮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한 하류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녀의 가정사를 통해 홍콩의 역사를 동시에 그려내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이러한 창작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그 후 그녀는 『타이완 삼부곡(台湾叁部曲)』을 창작한다. 『홍콩 삼부곡』의 연속선상에서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다룬 『빅토리아 클럽』은 『홍콩 이야기』와 『홍콩 삼부곡』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수칭의 창작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다준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스수칭이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돌아간 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 『살짝 취한 듯 보이는 화장술(微醺彩妆)』(1999)에서 『홍콩 삼부곡』의 복잡한 식민주의적 변증법이 ‘술’이라는 은유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3)</sup>

스수칭의 『빅토리아 클럽』은 1950년대 이후의 영국의 식민정책 아래 놓여 있었던 홍콩의 사법제도를 그린 소설이며 홍콩의 ‘빅토리아 클럽’은 영국 식민지의 상징적 공간이다. 식민지 홍콩에서 권력과 계급이라는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있는 백인과 피식민 지배자로서의 하이클래스 중국인들의 신분적 우월성을 상징하던 곳이 바로 ‘빅토리아 클럽’이다.<sup>14)</sup> 본 소설의 주 무대는 ‘빅토리아 클럽’이며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빅토리아 클럽’에서 일어난 부정 사건, 즉 뇌물 공모수뢰 스캔들이다. 본 소설은 식민지 홍콩의 사법제도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개항 후 100여 년간

12) 施叔青, 「我写历史小说」, 『香港文学』总第314期(香港, 2011.2.1), 4~7.

13) 왕더웨이, 김혜준 옮김, 『현대중문소설작가 22인』(학고방, 2014), 410.

14) 스수칭, 김양수 옮김, 『빅토리아 클럽』(한길음더, 2010), 7.

의 홍콩 식민지 역사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보여준다.

스수칭이 홍콩으로 이주한 1970년대 말 홍콩은 급격한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 자본주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홍콩은 영국식 제도와 관습에 중국식 전통문화와 풍습이 더해지면서 혼종된 형태의 독자성을 지닌 상업 도시로 변모 중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홍콩은 자본주의의 천국으로 인식되었다. 쇼핑과 호텔, 음식과 유희, 화려한 네온사인과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내는 야경은 홍콩의 상징이자 이미지였다. 기괴함을 글쓰기의 축으로 삼았던 스수칭에게 당시 홍콩이라는 공간은 기괴함 그 자체였다. 이는 홍콩 자체가 난세의 기이한 결정체이자 기 드보르(Guy Debord)가 말하는 스펙터클(spectacle)이었기 때문이다.<sup>15)</sup> 스펙터클의 사회는 인간과 상품 간의 분리를 넘어 상품과 상품의 이미지 간의 분리가 극도로 몰화되고 후자에 의한 전자의 지배가 사회의 현실적 관계로 자리 잡은 사회를 말한다.<sup>16)</sup> 극도의 자본주의 도시 홍콩은 스펙터클한 이미지와 현상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여 인간소외 현상과 인간 삶을 부정하는 형태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도시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식민시대 홍콩에 만연했던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제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면서 공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빅토리아 클럽(维多利亚俱乐部)』은 식민지 홍콩에서의 지배자와 피 지배자 사이의 권력 구조와 그 권력으로 인해 산출되는 자본과 물질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수칭은 주권 반환 직전의 홍콩 사

15) 왕더웨이, 김혜준 옮김, 『현대중문소설작가 22인』 (학고방, 2014), 387.

16) 김용규, 「스펙터클 이론으로 본 부산공간의 변화」,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08), 154.



회의 암담한 현실과 식민지의 현실을 소설을 통한 리얼리즘적인 수법으로 보여준다. 현재 한국에서 스수칭에 대한 연구는 이희영의 「施叔青 소설에 나타난 타이베이의 이미지 소비문화—『微醺彩妆』을 중심으로」와 김양수의 「스수칭의 『빅토리아클럽』에 나타난 홍콩사회의 식민주조」가 있다. 전자는 자본주의에 잠식된 타이베이의 소비문화를 외인을 소재로 보여주고 있고, 후자는 『빅토리아 클럽(维多利亚俱乐部)』의 역사 논문인 만큼 역사 후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중국대륙 또는 홍콩이나 타이완에는 스수칭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sup>17)</sup> 이들 논문 대부분은 스수칭의 초창기 작품과 『홍콩 삼부곡』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빅토리아 클럽』은 『홍콩 삼부곡』에서 다루고 있는 영국인 피가 4분의 1이 섞인 중국인 판사 왕웨이림(黄威廉)의 가보가 어떻게 홍콩 식민지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삼부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토리아 클럽』에 대한 스토리 분석과 플롯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홍콩 삼부곡』의 이해에 대한 사전지식과 배경적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빅토리아 클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에 『빅토리아 클럽』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스토리 분석을 통해 식민지 홍콩에서의 권력구조에 의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 양상과 그러한 권력과 맞물려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에 대한 몰욕과 소비욕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식민지 홍콩에 잠식되어 있었는지를 작

17) 陈潇, 「论施叔青小说的身体隐喻」, 『名作欣赏』(厦门大学台湾研究院, 2021); 韩旭东, 「施叔青“台湾叁部曲”的服装元素与身份政治」, 『台湾研究集刊』(厦门大学台湾研究院, 2019); 于迪, 「施叔青“香港叁部曲”的服饰书写」, 『世界华文文学论坛』(苏省社会科学院, 2018); 荒林, 「后现代女性主义文本——读“香港叁部曲”」, 『华文文学』(汕头大学, 2017) 등이 있다.

중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영국인 윌슨과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의 갈등

홍콩 이주작가들의 홍콩 이야기는 이주자들의 홍콩 적응기, 하층민들의 기구한 삶,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이다. 이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당시 홍콩의 자본주의적 병폐를 드러내거나 비판했다. 작중인물 상당수는 도시화 계획으로 인하여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비주류 계층의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 그리고 하층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sup>18)</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수칭의 『빅토리아 클럽』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홍콩 사회의 (최)상류층 인사들이다. (최)상류층 계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지배 계층이거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지배 계층으로 올라온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인 식민지 지배자 데이비드 윌슨과 피지배자로서 중간 관리자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徐槐)<sup>19)</sup> 그리고 홍콩본토 출신<sup>20)</sup>이자 엘리트로서의 싹찍(岑灼)이 그러하다. 이처럼 홍콩문학에 있어서 (최)상류층 사회의 삶과 일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많지 않다. 영국인 식민지배자의 삶을 소설을 통해 리얼리즘적인 수법으로 형상화시키는 것 역시 흔치 않다. 스수

---

18) 刘邓翰 主编, 『香港文学史』(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9) 참고.

19) 본 고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나 대명사는 가능한 한 홍콩에서 사용하는 발음 즉 영어나 광둥어 발음으로 사용한다.

20) 본 고에서 '홍콩 본토인'에 대한 정의는 홍콩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교육받은 자를 말한다. 본 고에서는 홍콩 본토인의 개념을 '홍콩 출신'이나 '홍콩 본토인'이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한다. 이는 현재 홍콩에서 '홍콩인'에 대한 범주를 출신지와 상관없이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여 사용하는 바이다.

칭은 『빅토리아 클럽』에서 이들 식민 지배자들의 권력 관계와 부정 부패를 묘사한다. 다음은 소설 창작에 관한 스수칭의 한 인터뷰이다.

나는 비교적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처음 홍콩을 쓸 때,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놀랄만한 주제를 계획해냈다. 나는 창작으로 인한 욕망으로 불타올랐고, 매일 엄격한 규율을 받들어 시행했다. 스스로를 서재에 가두어놓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내 마음에 남아 있고 내가 눈으로 보았던 가지각색의 홍콩인을 곱씹어 토해냈다. 홍콩을 쓰는 것 역시 나의 관점과 체험으로 인간세계를 반영해냈다.<sup>21)</sup>

인용문은 스수칭이 수페이(舒非)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스수칭은 홍콩에 와서 ‘홍콩 이야기’라는 주제로 소설을 연재할 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오랜 사색을 거치지 않고 직관적인 이미지와 본능적인 감각으로 묘사했음을 시사해준다. 홍콩으로 이주한 초창기에 그녀는 단편소설 형식으로 수많은 홍콩의 이야기를 서술했지만, 홍콩의 긴 역사와 복잡한 사회를 짧은 편 폭에 서술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그녀는 중편소설 『빅토리아 클럽』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이 소설의 구성 역시 작가의 순수한 창의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작가 본인이 홍콩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토대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수칭 자신이 속해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서 보고 느낀 바를 각색하여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홍콩으로 이주한 직후 스수칭은 자신의 직관과 본능에 따라 홍콩을 묘사하고, 자신이 속한 상류층 인사와의 만남과 모

21) 我比较是个依赖直觉, 本能的人, 当初写香港, 并没有经过深思熟虑, 拟出一个惊人的主题, 我被创作的欲望燃烧着, 每天奉行严格的规律, 把自己关注书房, 连电话也不接, 把存在我心中, 眼中形形色色的香港人经过咀嚼, 吐了出来, 写香港, 也就是用我的角度, 感受来反映人世间: 袁良骏, 『香港小说流派史』(福建人民出版社, 2008), 218.

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콩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주목하였다. 스수칭은 『빅토리아 클럽』에서 홍콩 하층민의 삶이 아닌 (최)상류층 인사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 형상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이는 스수칭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묻어나는 계급의식의 민감한 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녀는 또 다른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처음 홍콩을 마주했을 때 이곳 식민지 곳곳에서 묻어나는 신선함을 느꼈다. 이 느낌은 이전에 타이완이나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으로 홍콩에 온 후에야 느꼈던 일종의 계급의식이었다.”<sup>22)</sup> 스수칭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남편을 따라 홍콩 상류층 사교모임에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만난 상류층 인사들과 귀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면서 홍콩 이야기에 대한 모티브를 얻게 된 것이다.

『빅토리아 클럽』의 첫 장면은 홍콩 고등법원이다. 소설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빅토리아 클럽 구매 주임 초위와이의 뇌물 공모수뢰 사건 예심을 시작으로 전개된다. 짬뽕은 빅토리아 클럽에 고용된 지 8개월 된 신입사원으로 자신의 직장 상사 데이비드 윌슨과 초위와이의 공모수뢰 사실을 반부패특수부에 제보한다. 소설 속에서 서술되는 시간은 짬뽕이 상사의 공모수뢰를 반부패특수부에 제보하고 고등법원에서 예심이 열리기까지의 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초위와이를 중심으로 계급과 권력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 관계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묘사한다. 이 관계망의 중심에 홍콩의 (최)상류층 기관이자 사교클럽인 빅토리아 클럽이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권력과 계급에 따른 지배자와 피지배자,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종속적 위계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초위와이와 데이비드 윌슨의 관계, 초

22) 初初接触香港, 感到这殖民地处处透着新鲜, 这感觉是从前在台湾, 美国所没有的, 来了香港, 才感受到一种阶级意思: 张志珠, 「施叔青的世界」, 『博益月刊』第9期(香港, 1988.5.15), 10.

위와이와 부하 직원 싹쩍의 관계, 반부패특수부 조사관 프란시스 동(董)과 그의 상사 한트의 관계, 중국인 판사 왕웨이림(黃威廉)과 그의 영국인 아내 엘리자베스의 관계, 초위와이의 변호사 옹이(吳义)와 법정 변호사 베커의 관계, 윌슨의 아내와 초위와이의 아내 등을 들 수 있다.<sup>23)</sup> 이들은 각각 다른 사회적 관계망에 위치 지어져 있지만 결국 이들의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혈통이 중국인 또는 중국계 영국인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도 식민지 홍콩에서의 그들의 복잡한 지배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영국인을 대표하는 지배자들과 중국인을 대표하는 피지배자의 관계로 엮어져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초위와이와 싹쩍의 관계만이 중국인과 중국인의 관계이다. 이것은 영국인의 시선에서 볼 때이다. 홍콩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신분은 동일한 중국인이 아니다. 여기에는 홍콩의 복잡한 식민 역사가 작동한다.

초위와이와 싹쩍의 관계는 홍콩으로 이주한 신이주자와 홍콩에서 출생한 본토 출신이다. 이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설정되고 소설 속에서도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상징적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있지만, 지배자로 위치 지워진 초위와이는 영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 관리자인 중국인으로서 싹쩍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서부터 식민지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다시 확장되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맡았던 피지배자가 다시 지배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복잡한 권력 구조 관계가 만들어진다. 초위와이는 중간 관리자로서 영국인의 피지배자임과 동시에 홍콩인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초위와이 입장에서는 다중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23) 이들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서술은 김양수의 논문 「스수칭의 『빅토리아클럽』에 나타난 홍콩사회의 식민주조」에 잘 기술되어 있다.

식민지 홍콩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일찍이 루선도 언급한 바 있다. 1927년 루선은 처음으로 홍콩에서 강연을 하게 된다. 이때 루선은 짐을 검사하는 홍콩 세관의 태도에서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 루선은 「다시 한번 홍콩에 대하여」(1927)라는 글에서 “중앙에서 외국인 두목이 몇 사람, 그 부하로 아첨꾼인 고등 중국인 약간 명과 잡역이나 하는 노예같은 동포가 한 무리 있다. 나머지는 전부 묵묵히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토착민인 백성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4)</sup> 당시 루선이 직관적으로 바라본 식민지 홍콩의 권력 구조는 수십 년이 지난 후 『빅토리아 클럽』에서도 동일한 기제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식민지의 카스트제도와도 유사한 형태이다. 중국의 초창기 이민사에 의하면 중국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정착했다. 이들 이민자(상인)들은 현지의 식민지 통치자와 정치 권력을 다투지 않았다. 대신에 이들은 특정한 업무를 맡았고 제한된 특권을 가졌으며 특별한 통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들의 업무는 현지 상업과 서비스로부터 식민지 정권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에 집중되었고 이것은 초기 중국인 이주공동체에서 지도자 엘리트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필수적인 조력자 내지 협력자가 된 것이다. 이들 중국인 이민자들은 식민지 정권에서 경제적 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중국인 이주자들의 사회·정치적 위치는 식민주의자들의 밑이지만 3등 시민인 당시 동남아시아 토착민보다는 위에 있는 2등 시민이었다. 이것이 식민지의 카스트제도이다.<sup>25)</sup>

24) 스수칭, 김양수 옮김, 『빅토리아 클럽』 (한결음더, 2010), 8~9.

25) 필립 A. 쿤, 이영옥 옮김,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심산문화, 2014), 80~81 참고.

『빅토리아 클럽』에 나타나는 지배 계층의 구도 역시 동남아시아 식민지 카스트제도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영국인 윌슨과 그의 부하 직원인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 그리고 홍콩 본토인 싹쩍의 설정이 그러하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이 거의 3세기 동안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카스트제도 덕분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계급 구도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심한 적대감을 낳기도 했고 엄청난 사태를 이끌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홍콩 본토인 싹쩍의 상하이 출신 중간 관리자이자 자신의 직속 상사인 초위와이에 대한 적대심의 기저에는 식민지 당시 동남아시아의 토착민이 중국인 이주자에게 품었던 유사한 형태의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빅토리아 클럽』은 식민지 홍콩의 (최)상류층 사회의 부정부패를 자본주의 속성인 물질에 대한 욕망과 연결시키고 있다.

식민주의는 경제적인 요소가 핵심인 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식민지 홍콩 역시 자유로운 무역과 자본에 의해 성장한 도시이다. 물질이 만연한 자본주의 도시에서 물질에 대한 승배는 구매와 소비 욕구로 이어진다. 초위와이와 윌슨의 관계는 구매 담당 주임과 구매 총지배인의 상하 관계로 이 둘은 빅토리아 클럽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 구입을 담당한다. 초위와이는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받은 뇌물 일부를 상사 윌슨에게 다시 상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고수해간다. 윌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초위와이의 부정에 묵인하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다. 초위와이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부를 축척한다. 영국인 윌슨이 식민지배자라면 초위와이는 상하이 출신 중국인으로서 홍콩인을 지배하는 중간 지배자, 즉 내부 식민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인도 출신 탈식민

주의 이론가 호미바바(homi bhabba)가 언급한 잡종성에 대한 것으로, 초위와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적 구조에서 벗어나 백인 지배 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홍콩본토 출신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제3의 공간에 속해 있는 자로 자리매김해 볼 수 있다.<sup>26)</sup>

월슨과 초위와이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공모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특수부에 의해 뇌물수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영국인 월슨이 먼저 초위와이를 배신한다. 월슨이 초위와이를 경찰에 팔아먹기 전에 초위와이 역시 거꾸로 원고 측 증인이 되거나 타이완으로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초위와이는 홍콩에 남아 반부패특수부와 대항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 이유로는 당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던 홍콩의 물질만능주의 속성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초위와이는 본능적으로 구매와 소비에 뛰어났다. 1950년대 그는 홍콩으로 먼저 이주한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신이민자이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낯선 홍콩에서 혼자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했다. 초위와이는 광둥말(广东话)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집안의 생필품을 직접 구매해야 했다. 이것은 그가 홍콩에 거주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데 길 들여지는 계기가 된다. 초위와이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진입장벽이 높은 빅토리아 클럽에 입사한다. 입사와 동시에 초위와이의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소비 충동을 잘 보여주는 곳은 백화점이다. 출근 첫날 초위와이가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곳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백화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시 피에르가르텐 넥타이를 구매한다. 초위와이가 상류층을 대변하는 직장에 입사한 첫날 홍콩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명품 브랜드였다는 점에 있어서 상징

---

26)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 2006), 58쪽.



성을 지닌다. 이는 물질만능주의 홍콩에서 소비와 구매에 대한 욕망이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이후 초위와이의 명품에 대한 구매 욕구는 점점 견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고, 주머니에는 늘 현금 몇천 홍콩달러가 들어 있었다. 「좋아하는 물건을 보게 되면 언제든 살 수 있지」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사고, 가족을 위해서 사고, 클럽을 위해, 윌슨 부부를 위해 사고, 마온쟁을 알고부터는 그녀를 위해 샀다. 란크로포드는 1년에 두 번 대 바겐세일을 하는데 그는 첫날 곧바로 가서 사람들을 비집고는 스위스 명품 구두를 샀다. 신발 상자를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sup>27)</sup>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위와이는 빅토리아 클럽에 입사한 첫날부터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해외 여행지에서 홍콩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들리는 곳 역시 자신의 단골 쇼핑몰과 명품점이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는 홍콩에 온 것을 실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홍콩에서의 쇼핑이 편안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물건에 대한 구매 욕망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시 금전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졌다.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위와이는 자신이 갖고 싶은 모든 물건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고소 당한 뇌물수뢰 사건에서도 고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길 수

27) 他不用信用卡，口袋里总是摆着几千元现钞。「见到喜欢的就可以买。」他说。他为自己买，为家人买，为俱乐部，为威尔逊夫妇买，认识马安贞后，便为她买，连卡佛一年二度大减价，他第一天就去和人挤，买了双瑞士名牌皮鞋，忍不住翻开鞋盒示众，那时他正和朋友在餐厅吃饭：施叔青，《维多利亚俱乐部》（台北，联合文学，2006），72.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한다. 초위와이는 건물 한 채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불하여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영입한다. 초위와이의 자본에 대한 신뢰는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반면에 영국인 지배자 월슨은 원고 측의 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초위와이를 경찰에 팔아버리고, 자신의 기득권과 재산을 보호받은 채 여전히 이전의 홍콩에서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초위와이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초위와이와 월슨은 동시에 뇌물공모 수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에 의한 수사 대상이 된 초위와이의 집과 월슨의 집에 대한 수사 상황 역시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초위와이의 집은 수사관에 의해 압수 집행당하는 과정에서 쑥대밭이 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월슨의 집에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다. 월슨 부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중국 화집을 이리저리 감상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월슨과 초위와이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른 갈등 양상을 볼 수 있다. 월슨은 식민지배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식민자 초위와이와의 뇌물 공모수뢰를 초위와이 단독 뇌물수뢰로 몰고 간다. 오히려 그는 원고측의 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인 초위와이를 경찰에 팔아버리고 자신이 홍콩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기득권과 부를 여전히 유지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간다. 대조적으로 초위와이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을 걸고 소송에 대응하지만 결국 승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월슨과 초위와이의 권력에 따른 갈등 양상이 자본을 통한 구매욕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월슨의 집에 있는 뇌물증거에 대한 물건들이 그 예시이다. 빅토리아피크에 있는 월슨의 서재에 놓여 있는 파이프, 꽃문양의 도자기, 북유럽산

나무뿌리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유명한 화가 치너리의 수채화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유럽 명품인 수정으로 만든 술병, 은쟁반 등 모든 것들이 초위와이가 직접 구해 바친 뇌물들로, 월슨이나 그의 아내가 초위와이에게 던지시 암시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구해 바친 고가의 물건들이다.<sup>28)</sup> 이러한 상납 과정에서 월슨 또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초위와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뇌물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은연 중에 자신에게 뇌물을 상납하게 함으로써 월슨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킨다. 초위와이 역시 월슨과의 이런 부정한 관계를 통해 동시에 자신의 구매욕과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 예를 들면 1974년형 닷산 자동차, 빨간색 벤츠 250 컨버터블, 던힐 셔츠, 까르띠에 금시계, 쇼파드 시계 등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통해 월슨과의 내적 갈등을 스스로 해소시킨 것이다.

이 소설은 식민시기 홍콩 지배 계층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자본과 소비의 관계로 연결 짓는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이는 당시 스펙터클의 홍콩 사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실적인 간관계까지 지배하는 상품지배의 물질적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홍콩의 (최)상층부에 속하는 지배자들의 부정 부패가 반부패특수부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사법제도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도의 악순환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줌으로써 당시 식민시대 홍콩 사회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8)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台北, 联合文学, 2006), 29.

### 3. 신이민자 초위와이와 홍콩 출신 씬쩍의 갈등

션쩍은 초위와이와 윌슨을 뇌물 수뢰죄로 반부패특수부에 제보한 자로서 초위와의 부하 직원이다. 션쩍은 식민지 백인 지배 계층을 상징하는 빅토리아 클럽에 응시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던 첫날부터 초위와이를 싫어한다. 초위와이가 상하이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션쩍은 상하이인을 증오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상하이인은 모두가 증오의 대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위와이는 면접 내내 션쩍의 구멍 난 양말과 역겨운 발 냄새에도 불구하고 션쩍의 기분을 헤아려 그에게 그것과 관련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션쩍은 이 일로 인해 초위와이를 더 미워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초위와이에 대한 션쩍의 심리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와 홍콩 출신 션쩍 사이의 지위에 따른 권력 관계와 그에 따른 이들의 갈등이 어떤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홍콩 출신 션쩍은 학생 시절 때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참여한 열혈 투사였다. 션쩍이 빅토리아 클럽에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그의 직속 상사 초위와이를 고발한 것은 학생 시절부터 품었던 그의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홍콩 사회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본주의 도시로 변모되어버린 홍콩 사회와 자본주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소설은 션쩍의 기억을 통해 홍콩의 식민화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홍콩 정부에 대한 저항과 반발 그리고 시위운동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홍콩 역사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저항과 반발 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홍콩의 학생운동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영국인 식민지배자가 의도한 바와 같이 극도의 자본주의 도시로 변모하고 만다. 아래 인용

문을 살펴보자.

이번이 삼쩍이 두 번째로 범정에 들어온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한 번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모두 횡령과 관련이 있었다. 단지 73년 그해는 비교적 간접적이었다. 왕성했던 시절의 학생운동은 「조국을 알자」던 따오위다오 운동에서부터 「사회 개혁」이라는 고드버 사건으로 전향되었고, 운동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각성을 제고하였고 계속해서 횡령 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거리로 나가 「반부패, 고드버체포」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경찰 수뇌부 고드버를 홍콩으로 인도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모쓰 공원의 정상 지세를 이용하여 손에 손을 잡고 에워싸며 가짜 고드버를 체포하는 가두극을 연출하였다. 경찰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붙들고 간섭하여 하마터면 충돌이 일어날뻔했다. 29)

여러 해가 지난 후 「반자본, 반식민」을 외쳤던 학생들은 피고석을 내려와 교문을 걸어 나왔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예외 없이 모두가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에 매몰되었다. 「자본주의 혹은 사유제로부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의 전향은 지금껏 시도된 바 없다」라는 네루다의 생전의 예언은 불행히도 맞는 말이었다.30)

인용문은 삼쩍의 기억을 통해 반자본, 반식민을 외쳤던 홍콩의 강

29) 这是岑灼第二次步入法庭，距离上一回有八年了，都是和贪污有关，只是七叁年那回比较间接。火红年代的学生运动，从「认识祖国」的保灼运动，转向「改革社会」的葛柏事件，结合本土实际问题，制造运动提高住民的觉悟，继反贪污签名运动，走上街头游行示威，大喊「反贪污，捉葛柏」的口号，要求引渡警察头头葛柏回港受审，学生会利用摩士公园的山头地势，手拉手围拢上去，表演捉拿葛柏假人街头剧，警察上来拉人干涉，几乎引起冲突：施叔青，《维多利亚俱乐部》（台北：联合文学，2006），15.

30) 多年以后「反资反殖」的学生，走下被告席，步出校门，一个个几乎毫无例外的给殖民地的资本主义社会吞没了，「从资本主义或私有制转到社会主义和共产主义毕竟是从来未试过的事。」聂鲁达生前预言不幸言中：施叔青，《维多利亚俱乐部》（台北，联合文学，2006），16.

경한 학생운동가들마저도 결국에는 자본주의 홍콩에 물들고 오히려 그들이 자본을 통해 홍콩인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변모되어 있음을 신랄하게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택정책과 건축 계획 사업은 홍콩의 외관을 현재의 홍콩으로 변모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당시 상하이의 타자로 인식되었던 홍콩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인 과정을 거쳐 상하이를 능가하는 대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도시 외관상의 변모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의 의식과 정체성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이는 소설 속 씬책의 기억 속 학생운동가였던 친구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생운동가 초우이싼(曹以新)부터 살펴보자. 초우이싼은 혁명적 필요에 의해 7년간 대학을 다녔다. 당시 그는 피고석에서 앞으로 나와 법정의 법관에게 ‘당신들이 법률을 제정했다. 지금 당신들이 이번 학생 체포를 합법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라며 반박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초우이싼은 피고석을 내려왔고 혁명은 사라졌다. 그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교들을 상대로 푸지엔성(福建省) 바닷가 부근의 묘지를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자가 되었다. 썬찌캉(孫志羣)은 법정에서 박력 있는 진술을 하고 대학으로 돌아온 후 영웅 대접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여름 방학 내내 관탕(觀塘)의 플라스틱 공장 노동자에게 혁명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 역시 홍콩의 완구 공장 사장이 되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한다. 그는 자신의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 가둬 놓고 교대로 야간작업을 시켰다. 마지막으로 쥘싼쨥(朱申正) 역시 학생운동으로 기소되었던 씬책의 대학 동창이다. 당시 그는 법률을 공부해 민중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옥스퍼드에서 3년 만에 형법을 포기하고 상법으로 전공을 바꾼다. 그는 미국의 한 전기회사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sup>31)</sup> 초우이싼, 썬찌캉,

썸쩍은 썸쩍과 함께 반자본, 반식민을 외치며 학생운동을 했었던 썸쩍의 친구였다. 하지만 이들이 졸업할 무렵 홍콩은 이미 식민주의와 경제적인 요소가 결합된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되어 있었다. 이들 반식민, 반자본주의자들 역시도 이미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식민지배자에 대한 저항세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자본주의에 물든 철저한 친자본주의자가 되었다. 피지배자의 신분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식민지의 내부 지배자의 위치에서 홍콩의 서민을 피지배자로 인식하며 자본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은 이미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썸쩍은 이들 친구들에게 분노했고, 자본주의 사회로 물들어버린 홍콩에 분노했으며, 자신에게 분노한 것이다.

썸쩍은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초위와이를 선택한다. 여기에는 2장에서 서술한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식민지의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초위와이는 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중국인이지만 홍콩본토 출신인 썸쩍에게 있어서는 홍콩본토 출신들의 복지와 혜택을 빼앗아가는 중국대륙 출신인 신이민자<sup>32)</sup>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썸쩍의 분노가 영국

31)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 16.

32) 1949년 内地(중국 대륙)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홍콩인’ 신분증이 생기고 ‘불법체류자’라는 범주가 탄생하였지만, 홍콩인이라는 신분의 경계는 아직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다. 점차로 ‘홍콩인’ 범주가 명확해지고 이 ‘홍콩인’에 속하면서도 시민권에서 배제되는 ‘신이민’ 범주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제도와 정체성 두 측면 각각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즉 제도적으로는 반환을 앞두고 홍콩거주권과 주민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홍콩 영구거민(永久居民)’ 개념이 도입되면서, 모든 사회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홍콩인은 홍콩에서 만 7년 이상 거주한 ‘홍콩영구거민’에 국한되고, 홍콩에 거주한 지 만 7년이 안된 사람들은 ‘신이민’으로 범주화하였다. 다른 한편, 정체성 측면에서는 1967년 반영(反英) 폭동을 계기로 홍위병과 좌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 홍콩인들이 ‘조국’과 단절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후 식민정부의 유회정책과 홍콩 출생자 증가, 그리고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홍콩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내지 이주민들(신이민)은 탐욕스럽고 홍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면서 대중문화에서 조롱과 회화화의 주된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장정

인 지배인 윌슨보다 대륙출신인 신이민자 초위와이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이다. ‘신이민자’라는 것은 홍콩에 온 지 만 7년이 안 된 이주민이라는 뜻의 기술적 용어에 불과하지만 실제 용법에 있어서는 이미 단어 자체에 강한 경멸감과 반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반감은 단지 신이민자에게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대륙인에 대한 홍콩 출신자들의 뿌리 깊은 감정이 신이민자에게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sup>33)</sup>

74년 반부패특수부가 설립되었고, 초위와이는 외지에서 온 신이민자로서 식민 주인에 대해 친성적으로 신임하지 않았다. 상하이인은 영국놈들에게 엄청난 무시를 당해 그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했다. 식민지의 홍콩인이 영국 주인에 대해 사랑하고 증오했다는 착종된 심리 상태와는 당연히 달랐다.<sup>34)</sup>

썸쩍은 분노에 찬 주먹으로 법원의 이종문을 두드렸다. 10년 전 「반자본 반식민」 학생운동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는 식민지의 본질에 대해 절실히 체감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휩싸였다. 분노 외에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sup>35)</sup>

인용문과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썸쩍이 상하이인 초위와이

아, 「타자로서의 이주민 - 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新移民)」, 『비교문화연구』 제8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2), 38. 본고에서는 장정아가 설명한 신이민자의개념 중 후자의 개념을 말한다.

33) 위의 글, 39.

34) 七四年廉政公署成立, 徐槐以外来新移民对殖民主子天生的不信任, 上海人给英国鬼欺负透了, 恨他们恨到入股, 与殖民地的香港人对英国主子又爱又恨的错综心态自是两样: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 25.

35) 岑灼愤怒的拳头敲门法庭的双重门, 十年前「反资反殖」学生运动不再只是空幻的摇旗呐喊, 他在深切体会到殖民地本质的同时, 被一种无能为力的无力感所包围, 除了愤怒, 他一无所有: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 192.



를 고발한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다. 찰콕은 영국인 지배인보다는 중국대륙 출신 신이민자에게 더 강한 불신과 반감을 표출한다. 이 불신과 반감은 다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결국 찰콕이 품은 분노와 보복은 홍콩 사회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할 수 있다.

찰콕과 초위와이는 처음부터 홍콩 출신과 신이민자 관계에서 출발한다. 찰콕이 초위와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와 반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찰콕이 면접 첫날 자신을 면접할 면접관이 자신이 예상한 영국인이 아닌 상하이인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부터였다. 찰콕은 초위와이가 상하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증오했고, 그의 발냄새를 묵인해준 초위와의 친절에 더 증오심을 느낀다. 초위와이가 중국대륙에서 이주한 신이민자였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서양인은 보잘것없는 한 응시자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낮추며 가마에서 내려올 리가 없었다. 월슨의 여비서는 전화상으로 찰콕에서 구매 담당 책임자는 상하이 놈이며 방금 외출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쓰리 피스 양복을 입은 한 남자와 스쳐 지났고 그를 바쁜 중에 훑듯 보았었다. 그는 가슴 앞에 흔들거리는 옥이 매달려 있는 체인을 걸고 있어 속되고 천박해 보였다. 팔걸이가 높은 갈색 의자에 파묻혀 있는 자는 백금의 쇠사슬을 달고 있던 그 사람보다 크지 않았고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다. 초위와이는 일반 상하이인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었다. 찰콕은 고집스럽게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고 선입견으로 형성된 인상을 고쳐 보려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상하이 놈은 다 같은 놈이었다. 찰콕에게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sup>36)</sup>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씬쩍은 초위와이가 신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오했다. 씬쩍은 기회를 틈타 초위와이의 뇌물 수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홍콩인의 입장에서 신이민자는 타자였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홍콩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홍콩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후, 홍콩인은 중국대륙을 자신들의 중심 또는 뿌리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홍콩의 현대화와 도시화가 홍콩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의 기준이 되었다. 경제력이 자부심의 척도가 된 것이다. 홍콩에서 신이민자의 신분은 낙후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보다도 더 강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sup>37)</sup> 홍콩에서 신이민자는 타자의 대상이자 배척의 대상으로 이중적 의미를 지닌 자들로 인식된다. “빈곤한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비난받고, 성공한 이주민은 교활하다고 비난받는다”<sup>38)</sup> 라는 표현은 신이민자에 대한 홍콩인의 감정을 잘 표현한 말이다. 초위와이는 성공한 신이민자로서 영국의 식민지 홍콩에서 호미바바가 언급한 제3의 공간을 차지하며, 사이인 또는 경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씬쩍은 식민지배자 영국인보다 중간 지배자 역할을 하는 중국대륙인 초위와이에게 홍콩본토 출신인 자신의 증오심을 더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하이 출신 초위와이는 종만대학(中文大學) 출신인 씬쩍을 부러워한다. 초위와이는 씬쩍이 자신의 광둥말 발음을

36) 殖民地的洋人不会为了区区一个应征者，降贵纡尊从轿子走下来。威尔逊的女秘书在电话中告诉岑灼，负责采购的是个上海佬，刚刚在外头，他和一个穿叁件头西装的男人擦身而过，匆匆一瞥，那人横过胸前的怀镖炼上悬了块古玉，伧俗得可以，高臂棕皮椅内的人，似乎不及挂白金表炼的那个人高，也没有那么瘦，徐槐在上海人的圈子，一点也不典型。岑灼固执的垂下眼睛，不准修正先入为主的印象，反正上海佬一路货，岑灼绝对有痛恨他们的理由：施叔青，《维多利亚俱乐部》，134.

37) 장정아, 「타자로서의 이주민-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新移民)」, 49.

38) 위의 글, 37 재인용.

비웃는 듯하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바이올렛을 멸시한다고 느끼지만 씹쩍의 이 모든 행동에 개의치 않는 듯 행동한다. 초위와이는 씹쩍에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낀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감정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신이민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이민자는 공식적으로는 홍콩인이지만 거주 시기에 따라 다시 비영구 거주민과 영구 거주민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상의 구분과는 별개로 홍콩에서는 특별히 광둥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에 철저히 동화된 신이민자들에게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신이민자라는 꼬리표를 가진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홍콩인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 진정한 홍콩인으로 대우받길 원한다. 그러한 전제 조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조건이 언어이다. 광둥말과 영어 구사 능력은 홍콩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특히 광둥말이 서툰 경우 홍콩인으로 낙인되기 어렵다. 신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역시 광둥말과 영어 구사 능력이다. 소설 속 초위와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초위와이의 첫사랑 토우옥잔(涂玉珍)은 레스토랑에서 영어로 된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주문을 하지 못해 얼굴이 빨개진 초위와이가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자신과 동일한 메뉴를 주문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홍콩의 고급 레스토랑과 초위와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여긴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우옥잔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자신이 초위와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긴다. 하나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초위와이가 노스포인트(北角)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신이민자라는 점이다. 결국 토우옥잔은 초위와이에게 영어 학원에 등록할 것을 은근슬쩍 권유하며 이별을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위와이는 여전히 자신의 첫사랑인 토우옥잔을 잊지 못한다. 이유는 토우옥잔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가 자신을 가난한 신이민자로 얽잡아보았기 때문이다.

초위와이는 홍콩 출신인 그의 첫사랑 토우옥잔과 그의 부하직원인 싼쩍에게서 자신을 대하는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 신이민자에 대한 무시이다. 초위와이는 홍콩본토 출신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홍콩에서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을 물질에 대한 소유로 생각한다. 이것은 초위와이가 빅토리아 클럽에 입사한 첫날부터 소비와 구매에 대한 강한 욕망과 물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위와이의 마음속 깊이 내재 된 첫사랑 홍콩인에 대한 복수심은 자신에 대한 과시욕으로 표출된다. 이는 초위와이가 첫사랑 토우옥잔과 헤어진지 17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녀와의 데이트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와 헤어진 후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던 초위와이는 과거 그날에 대한 치욕을 물욕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그는 토우옥잔에 대한 과시욕으로 빨간색 벤츠와 명품 셔츠를 고르며 해산물 납품업체 사장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명품 시계를 차고 약속 장소로 향한다.<sup>39)</sup> 초위와이의 이런 행동묘사를 통해 그의 복수심이 물욕에 대한 과시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초위와이는 백인 식민지배자가 부여한 권력으로 홍콩 서민들로부터 뇌물을 수취하고 또 받은 뇌물로 자신의 물욕을 충족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초위와이의 부하 직원 싼쩍은 홍콩에서 성공한 중국대륙 출신인 신이민자 초위와이를 불신과 증오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싼쩍은 초위와이에 대한 복수심을 뇌물 수취리는 그의 죄행을 반부패특수부에 폭로하는 것으로 홍콩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였던 것이다. 작가는 식민지 홍콩의 (최)상

---

39)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 90.

류층 사교계인 빅토리아 클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와 이를 초래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홍콩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현상이 홍콩의 일상이 되어 홍콩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나오며—스수칭이 그려낸 식민지 홍콩

지금까지 다수의 작가들이 홍콩을 이야기했고 지금도 홍콩을 이야기한다. 홍콩은 이주자들로 이루어진 혼종적인<sup>40)</sup> 공간이다. 작가들의 출신지 역시 다양하다. 스수칭은 타이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타이완에서 다시 미국으로 국경과 경계를 옮겨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홍콩에 머물렀던 17년 동안 도시 홍콩의 면면목을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괴한 이야기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본과 소비의 도시 홍콩에서 그녀는 자신의 시선에서 바라본 홍콩의 정체성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빅토리아 클럽』은 스수칭의 시선에서 홍콩의 식민지 역사와 홍콩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홍콩의 지배 계층에 속해 있는 두 등장인물의 갈등을 주요 플롯으로 설정하였다.

스수칭은 식민지 공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클럽을 축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뇌물 공모수뢰 사건을 파헤친다. 그녀의 시선은 홍콩의 (최)상층부 사법부로 향해 있다. 식민지에서의

---

40) 여기서 말하는 혼종적인 공간은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불규칙적인 구조와 형태로 섞이고 얽히고 엮여져 재결합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간 지배자인 초위와이를 중심으로 지배인 윌슨과 초위와이의 갈등, 그리고 초위와이의 부하 직원인 홍콩 출신 싹쩍과 초위와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소설은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던 당시 홍콩의 사회문제를 직결시켜 이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물질을 인간관계보다 우위에 두고 더 나아가 물질인 상품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그 상품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가치를 더 중시하는 홍콩의 풍조는 정치적 식민에 이어 물질과 상품의 식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인 초위와이는 스펙터클한 사회에 매몰된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의 소비와 구매 욕구는 뇌물 수뢰라는 부정으로 이어지고 그의 갈등 해결 방식 역시 소비와 구매라는 끊임없는 물화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싹쩍의 갈등 양상은 반자본과 반식민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신이민자인 초위와이에 대한 복수로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싹쩍과 초위와이를 중심으로 파생된 인적 네트워크와 그들의 기억을 통해 홍콩 및 상하이의 역사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는 필자의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스수칭은 극도의 자본주의로 치닫던 당시 홍콩 사회의 소비 욕구를 초위와이의 구매욕과 뇌물 수뢰죄를 통해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스펙터클한 홍콩 사회의 물화 현상은 인간을 소외시켰고 인간의 가치는 물질에 의해 매몰되었다. 홍콩 사회의 기괴함과 낯설음은 극도의 자본주의에 의한 식민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기괴함과 낯설음이 더 이상 기괴하지 않고 낯설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가 바로 홍콩이고, 이것이 작가 스수칭이 당시 『빅토리아 클럽』에서 그려내고자 했던 홍콩이다.

| 참고문헌 |

- 김양수, 「스수칭의 『빅토리아클럽』에 나타난 홍콩사회의 식민주조」, 『횡단인문학』 제8호 (2021).
- 김용규, 「스펙터클 이론으로 본 부산공간의 변화」,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08).
- 로버트 영, 김용규 옮김, 「호미 바바의 양의성」, 『오늘의 문예비평』63 (2005).
- 리어우관 저, 장동천 역, 『상하이 모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호미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3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박정희, 「상하이와 홍콩, 공간의 상대성과 주체의 정위」, 『중국어문학』 64 (영남중국어 문학회, 2013).
-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 2006).
- 스수칭 저, 김양수 역, 『빅토리아 클럽』 (한결음더, 2010).
- 장정아, 「타자로서의 이주민: 홍콩의 중국본토 이주민(新移民)」, 『비교문화연구』 제8집 2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2).
- 한재은, 「왕안의 상하이 제재 소설 연구-상하이인의 일상생활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어중문화학회, 2018).
- 아만 말루프, 박창호 옮김, 『사람잡는 정체성』 (이론과실천, 2006).
- 이혜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2).
- 이희영, 「施叔青소설에 나타난 타이베이의 이미지 소비문화-『微醺彩妆』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 윤수중, 『네그리·하트의 『제국』·『다중』·『공동체』읽기』 (세창미디어, 2014).
- 왕더웨이 저, 김혜준 역, 『현대중문소설작가 22인』 (학고방, 2014).
- 刘邓翰 主编, 『香港文学史』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99).
- 香港文学, 「施叔青作家年表」, 『香港文学』 总第314期 (香港, 2011年 2月1日).
- 施叔青, 『维多利亚 俱乐部』 (台北, 联合文学, 2006).
- 施叔青, 「我写历史小说」, 『香港文学』总第 314期 (香港, 2011年2月1日).
- 张志珠, 「施叔青的世界」, 『博益月刊』 第9期 (香港, 1988年 5月15日).
- 也斯, 『香港文化』 (香港, 青文书屋, 1995).
- 袁良骏, 『香港小说流派史』 (福建人民出版社, 2008).
- 应宇力, 「无根无常的人生-异邦人施叔青的创作」, 『香港文学』 第190期, (2000.10.1).

## Power Structures and the Aspects of Conflicts of the Ruling Class in Hong Kong During th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novel *Victoria Club* by Shi, Shu-Qing

Song, Ju-Ran(Pusan National University) | heeya5280@hanmail.net

Shi, Shu-Qing is a Taiwan-born writer having multiple identitie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Hong Kong, and Taiwan. She creates novels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in her life by crossing boundaries and places. *Victoria Club* is a novel featuring Hong Kong from her position and perspective after Shi, Shu-Qing's staying in Hong Kong for over a decade. The background of the novel is from the 1950s, when Hong Kong was a British colony, to the 1980s, before Hong Kong's sovereignty was returned to the China. However, the time covered in the novel encompasses the 100-year colonial era, which is far longer than that.

*Victoria Club* investigates the cases of corruption and bribery happened at the Victoria Club, a symbol of colonial space. Shi, Shu-Qing's gaze is directed toward the judiciary, the highest executives in Hong Kong. The main characters are Chow wi wai from Shanghai, an intermediate official in colonial Hong Kong, and Samzuek from mainland Hong Kong. Their relationship is an immediate supervisor and a subordinate. Chow wi wai is portrayed as a person immersed in a spectacular society. His desire for consume and purchase leads to the corruption, accepting bribes, and his way of resolving conflicts is also connected to the continuous reification of consumption and purchase. Meanwhile, the conflicting aspect of Ssam Zhueng connects self-hatred, who failed to achieve anti-capitalism and anti-colonialism, with his revenge for Chow wi wai, a new immigrant. The novel focuses on their conflict, but shows the history and specific urban image of Hong Kong and Shanghai through the human networks and the memories derived from them.

Eventually, Hong Kong society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Shi, Shu-Qing was a peculiar and strange society formed by interconnected with colonialism and capitalism, but this strangeness and peculiarity became the daily life of Hong Kong, which shows that is Hong Kong's identity. I specifically analyzed this conclusion through the story of *Victoria Club*.



Keywords :Hong Kong Novels, Shi, Shu-Qing, Colonialism, Victoria Club, Capitalism,

투고접수: 2022.05.16.  
심사완료: 2022.06.23.  
게재결정: 2022.06.23.

코기토 97 (2022.6) 193